

# 봉안시설 추모객 분산 나서

### 전주시, 추석 연휴 자체 운영 봉안시설 폐쇄·연휴 앞두고 사전예약 받아 운영

전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봉안시설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 운영 중인 봉안시설을 폐쇄하고 연휴 앞두고 사전예약을 받아 개방하기로 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운영 지침과 전주시 보건·의료지원관의 자문을 거쳐 이달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 동안 자체 운영 중인 실내 봉안시설을 폐쇄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한편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시설은 부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자체 운영하는 실내시설인 봉안당과 봉안원을 추석 연휴기간 전면 폐쇄한다. 대신 ▲6일부터 17일까지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할 성묘객을 하루 500명까지 예약을 받기로 했다. 동시 입장인원도 시설별

로 48명까지 제한되며, 가족당 이용시간도 30분까지만 허용된다. 전주승화원 화장장은 추석 당일인 21일 하루 폐쇄된다.

실외시설인 효자공원묘지는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5주간 성묘객 총량 예약제로 운영된다. 공원묘지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신접종 2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족당 8명, 성묘시간 30분, 시간대별 1000명, 1일 4000명으로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공원묘지 출입구 6곳에는 발열체크 및 인원 통제 역할을 맡을 방역인력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봉안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 폐쇄 및 사전예약제를 권고했다. 모악추모공원과 효자추모관, 금상동성당 하늘자리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자암추모관은 20

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폐쇄하기로 했다. 그린피아추모공원은 현재 폐쇄일을 검토 중이며, 전주추모관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추모객 분산을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ehaneul.go.kr)를 통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치사진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고인명을 검색한 후 고인이 안치돼있는 사진(봉안함 등)을 선택해 차례상, 헌화, 추모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주에는 민간 시설을 포함해 총 10곳에 5만9486기의 장사시설이 있다. 지난해 추석기간 장사시설을 찾은 성묘객은 4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정수장~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수질검사 품질 '우수'

전주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고산정수장과 대성배수지, 106곳 수도꼭지 등 총 108곳을 대상으로 종합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음용수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질검사실 검사요원들을 2인 1조, 3개조로 편성해 정수장부터 배수지,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각 급수과정 단계별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고산정수장의 경우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류(3개), 납 등 건강상유해무기물질(12개), 다이아지논 등 건강상 유해유기물질(16개), 총트리할로메탄 등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11개),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19개) 등 총 61개 항목에 대해 분석이 진행됐으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매우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배수지를 통과해 각 세대 및 상가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잔류염소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2차 오염 발생 여부 등 수질 변화 추이를 세부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물의 냄새와 맛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염소량의 경우 일반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1~4.0mg/l 중 최대치의 1/8 정도인 0.48mg/l로 측정돼 소독 냄새가 매우 적게 나는 것으로 판명됐다. 물의 온도 또한 13°C 정도로 실온보다 차가웠으며, 경도는 기준치인 300mg/l에 크게 낮은 평균 39mg/l인 것으로 측정돼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 5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2021년도 측정분석기관 숙련도시험 평가'에서 최상위 검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공동주택 물 음용 컨설팅 및 현장점검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전주시 수돗물은 정수장에서부터 가정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질검사를 관련 규정보다 월등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전주시가 노인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제공했던 일자리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도 노인일자리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19년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데 이은 잇따른 성과다.

지난해 시는 2019년과 대비해 1639개가 늘어난 9625개의 재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니어클럽 등 15개소 수행기관과 비대면 일자리 사업을 대폭 늘리고, 일자리 현장의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장형 사업단의 수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은 것으로 평

가됐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전국 지자체 평가' 시상식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평가에서도 전주시니어클럽이 대상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최우수상,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이 복수유형 1그룹 B등급 우수기관,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단일유형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설공단, 업계 최초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CCTV 4대로 풀장 입수객 움직임 관찰... 유사시 자동으로 위치 표시

'삐, 삐, 삐'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에 적색 표시가 떴다. 57번 영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호였다. 해당 위치를 확대해 보니 한 풀장 입수자가 미동도 없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안전요원이 즉시 달려가 입수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입수자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을 되찾았다. 사고 발생 즉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 덕분에 무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주시설공단이 자체 개발한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조병우)이 자체 개발한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한 인명구조 상황을 가상으로 연출한 장면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수영장 전체를 감시하는 CCTV 4대를 통해 이용객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물속에서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이용객의 실시간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안전 보조 장치다.

안전관리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해당 구역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해 인명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경고 신호는 경고음과 함께 모니터에 표시된다. 또 안전관리자 개개인의 LTE 단말기에도 전달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은 유사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요긴하게 활용된다. 수영 공간을 이용 중인 입수자의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입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은 현재 완산수영장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덕진수영장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13년간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며 터득한 노하우가 시스템 개발의 토대가 됐다. 공단은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을 현재 진행 중이다.

조병우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영장은 시설 특성상 수영 미숙과 심정지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시 존재한다"며 "특히 심정지는 인공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통해 이용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미얀마 대학생에 2075만원 특별장학금 전달

### 전주시, 전북은행·전주시설공단·중립산업·공무원·시민 등 기탁금 모아 83명에 25만원씩 지급

전주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대학교 미얀마 대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 2075만 원을 전달했다.

특별장학금은 지난 6월 이후 전북은행 1000만 원, 전주시설공단 518만 원, 중립산업 300만 원, 전주시청 직원 및 시민 25만 원 등 각계각층에서 모아 마련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총 83명의 미얀마 대학생에게 각각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기관·단체로부터 기탁 받은 총 1억 원의 성금을 미얀마 민주화지지 전주연대에 전달한 바 있다.

시는 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미얀마 유학생 12명을 희망근로자로 채용했으며, 미얀마 민주화지지 티셔츠 판매장소 5곳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얀마



전주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대학교 미얀마 대표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 2075만 원을 전달했다.

대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00일이 넘었지만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희생자가 발생하

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얀마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관·단체 및 기업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